‘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

‘선구제 후회수’ 野 단독 직회부한 개정안, 본회의서 안건 심의 가능
국힘 “현금 지원 반대”…민주, 합의 불발시 이달 말 강행 처리 추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우리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민주연합 합당 절차 마무리

‘코인 투자’ 김남국, 1년 만에 복당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자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가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석준 출마에 與원내대표 경선 새판 짜나

이철규 불출마 가능성…김도읍·김성원, 재고 여부 관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인물난 속에서 엿새 미뤄진 가운데 2일 송석준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판이 새롭게 짜일 듯한 조짐이다.

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출마 선언이 없어 경선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된 데 이어 당내에서 중진들을 향한 출마 요구가 잇따르자 분위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이천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3·4선 중진 의원들도 다시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3선·부산 강서) 의원이나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의 결정 재고 여부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박대출(4선·경남 진주갑) 의원도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단독 추대설까지 돌았던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3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후보난에 이 의원 단독 추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 지도부가 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반발도 감지됐다.

이날도 윤상현 의원, 김종혁 조직부총장, 신동욱 당선인 등이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 대신 다른 후보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3선 당선인이 된 재선 의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송석준, 추경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모임에서 “당이 어려운 때이니 4선 의원들도 선거에 많이 나오고 3선 의원들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에 활기를 일으키고 ‘붐업’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도록 많이 권유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 김오수 전 검찰총장 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취업을 불허했다.

윤리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이번에 윤리위 심사를 받았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시교육청, 콘텐츠 없이 스마트기기만 보급”

이귀순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기기 보급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민주·광산구4)은 2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 보급에만 급급했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만 사주면 ‘스마트 교육’인 것처럼 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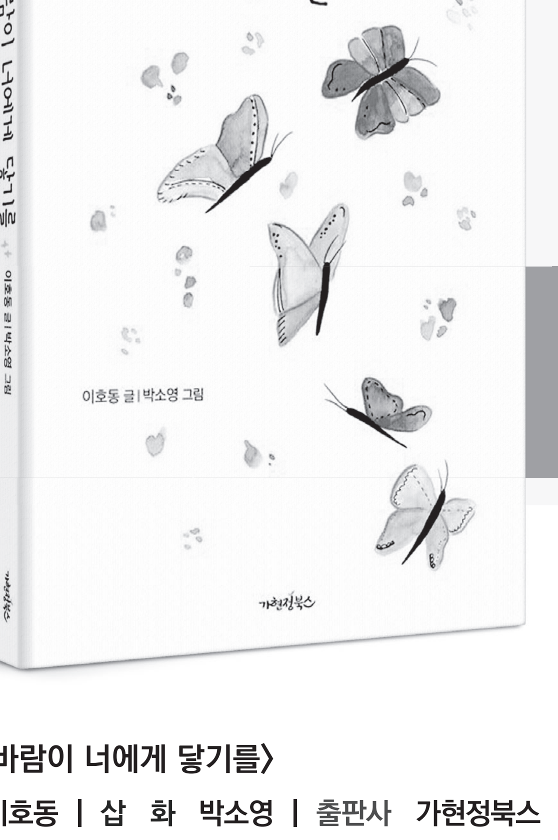
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지난해 중학생(노트북) 540억원, 고등학생(태블릿PC) 116억원 등 총 65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2024년 본예산 기준 280억원, 추경 예산안으로 123억원이 올라와 총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스마트기기 활용률은 현저히 떨어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전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 학교와 선생님조차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급된 학교 30여 군데만 둘러봐도 학교 창고에 방치된 스마트기기만 1700대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김해나 기자 khn@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